

## 한국 남성의 일·가정 양립 추구, 크게 증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다고 지적했으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다수의 가사일을 여성이 감당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문화적으로 불평등한 구조 문제가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들어 초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자녀 양육 역할의 부담을 꼽아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워라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는 젊은 아빠들의 일·가정 양립 추구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었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1

## [결혼과 출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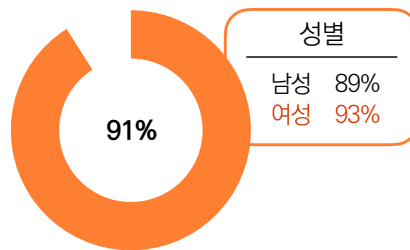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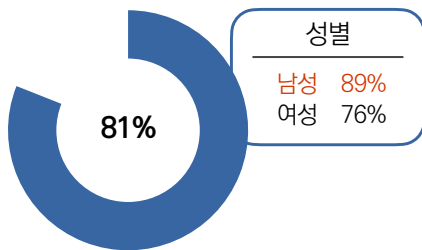
### 여성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 25~49세 결혼 의향 없는 미혼 국민에게 결혼하면 우려되는 몇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에 동의한 비율은 81%, '가사,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는 91%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미혼 남녀가 '경제적 요인'과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성별로는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를 꼽은 비율이,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결혼 의향 없는 사유에 대한 동의율 (결혼 의향 없는 25~49세 미혼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 준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2024.05.02.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 모바일 조사, 2024.03.29.~04.03.)  
\*4점 척도

# 02

## [일과 가정 양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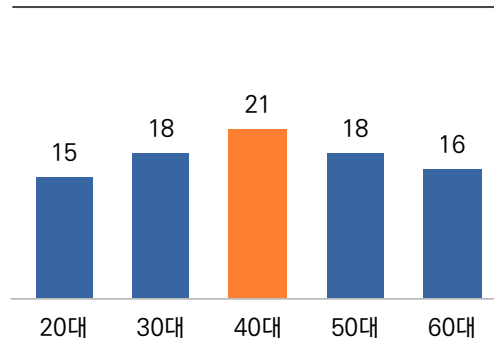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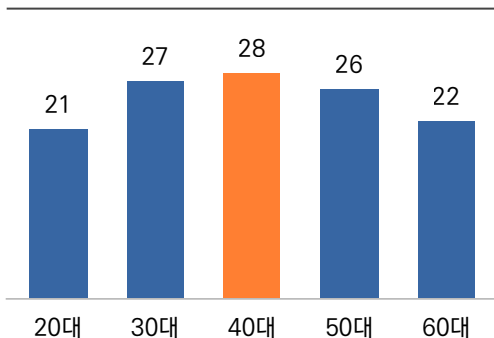
### 40대 연령층, 워라밸 수준 가장 낮아!

- 이번에는 일과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동의율을 살펴보았다.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에 대해 40대의 동의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역시 40대에서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40대의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흔들리고 있었다.

[그림] 연령별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인식 (일반 국민,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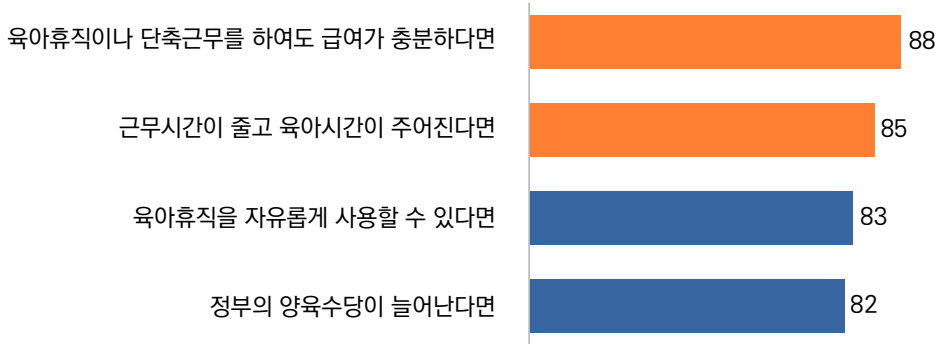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 가족실태조사', 2024.04.17. (전국 1만 2천 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 면접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06.01.~07.31.)

\*5점 척도

## 출산율 높이기 위한 조건, '육아 시간 확보'와 '경제력'!

- 출산 적령기의 국민에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이 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85%,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83% 등의 순이었다. 종합해 보면 생활을 위한 '경제력'과 '육아를 위한 시간'이 갖추어졌을 때 출산 의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조건별 출산 의향 증가 '그렇다' 응답률 (25~49세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2024.05.02.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 모바일 조사, 2024.03.29.~04.03.)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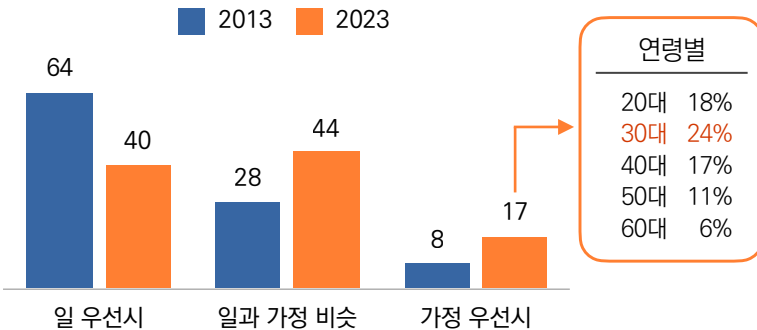
## 03

### [아빠의 일과 가정 양립]

## 한국 남성의 일·가정 양립 추구, 크게 증가

- 한국 남성들은 일과 가정생활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 2013년과 2023년의 10년 사이 남성들의 일과 가정생활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 우선시' 응답이 2013년 64%에서 2023년 40%로 10년 사이 크게 줄었고, '가정 우선시' 응답은 8%에서 17%로 크게 증가하여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가정 우선시'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가 24%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남성의 일과 가정생활에 대한 우선순위 변화\* (20~60대 남성, %)



※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분투하는 30대 요즘아빠', 2024.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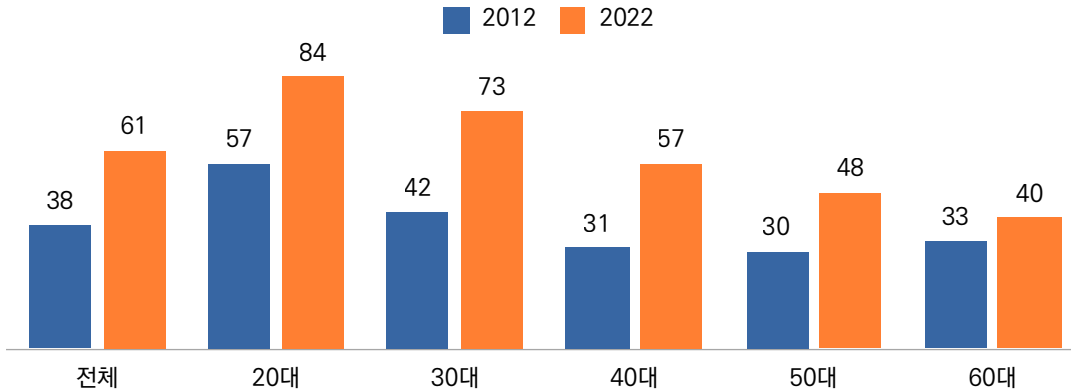
※원출처: 통계청 (2013년, 2023년)

\*5점 척도

## ‘가사 분담은 부부가 공평하게’ 인식, 젊은 남성일수록 높아!

- ‘부부가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을 남성에게 물었다. 10년 전 조사 대비 2022년 ‘부부 공평 분담’ 응답률이 크게 상승했으며(38%→61%),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대 대부분(84%)은 가사 노동에 대한 남녀의 역할 동등 입장이 강해 기성세대와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그림] 연령별 가사 분담,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 비율\* (20~60대 남성, %)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분투하는 30대 요즘아빠’, 2024.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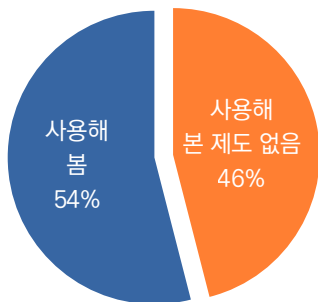
※원출처 : 통계청(2012년, 2022년)

\*5점 척도 보기(남편이 모두 책임, 남편이 주로 책임, 부부가 공평하게, 아내가 주로 책임, 아내가 모두 책임) 중 ‘부부가 공평하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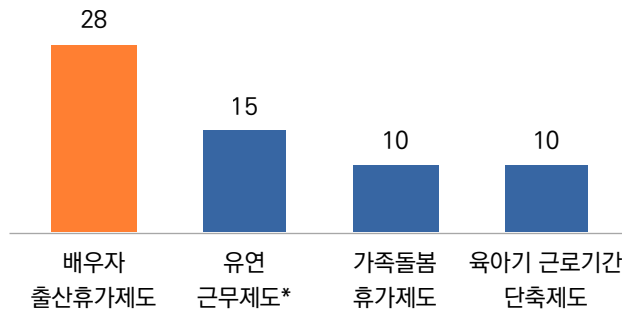
## 일하는 아빠 절반 가까이,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해 본 적 없어!

- 이번에는 9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인 남성에게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제도(규제, 지원금, 서비스 등)를 뜻하는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사용 경험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인 46%는 ‘사용해 본 제도가 없다’고 응답했고, 1개라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54%)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등의 순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경험  
(9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직장인 남성)



[그림] 사용해 본 일·가정 양립제도  
(9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직장인 남성, 중복응답, %)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2022.01. (9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배우자가 있는 일하는 남성 1,113명, 온라인 조사, 2021.11.22.~11.24.)

\*사차출퇴근/재택근무/원격근무제

Note) 일·가정 양립제도 :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제도(규제, 지원금, 서비스 등)를 말하며, 2015년 말 기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총 37 개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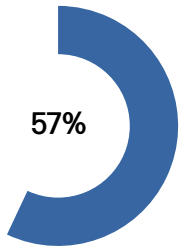
## [개신교인의 가사 돌봄과 신앙]

### 3040 기혼 교인 3명 중 1명, '가사/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

- 가사 노동, 육아는 3040 기혼 크리스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3040 기혼 크리스천의 절반 이상인 57%가 '나는 가사 노동,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고 응답했고, 이들 가운데 34%가 '가사/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에 동의했다.

[그림] 가사 노동,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인식 (3040 기혼 개신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나는 가사 노동,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



[그림] 가사 노동, 육아 스트레스의 신앙 영향 인식 (가사-육아로 지친 3040 기혼 개신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가사/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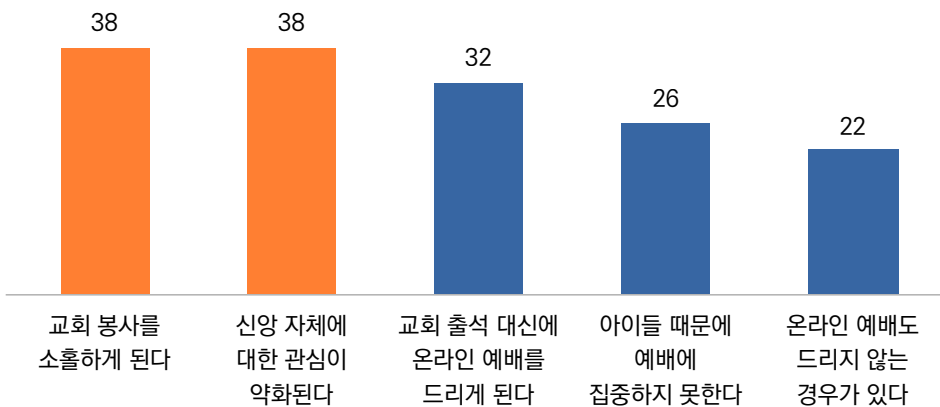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교육원, '3040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 (전국 만30~4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2023.09.08.~09.12.)

\*4점 척도

## 가사, 육아로 인한 신앙 악영향, '교회 봉사 소홀', '신앙 관심 약화!'

- 앞서 가사 노동, 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데 동의한 자들에게 신앙에 있어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은 결과, '교회 봉사 소홀'(38%),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 약화'(38%)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교회 출석 대신 온라인 예배 드림' 32%,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 못 함' 26% 순으로 다양한 부정적 영향들이 고루 응답됐다.

[그림] 가사 노동, 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사 및 육아로 인해 신앙의 영향을 받는 자,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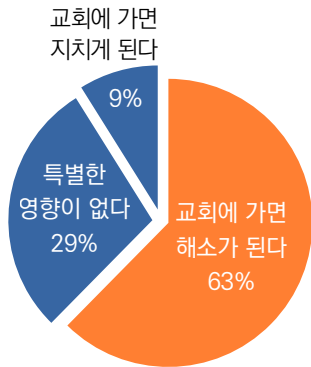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교육원, '3040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 (전국 만30~4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2023.09.08.~09.12.)

## 교회 가면 ‘사회·가정 생활 스트레스 해소된다’, 63%!

- 사회와 가정생활의 스트레스가 있는 크리스천이 교회에 가면 스트레스 해소가 될까? 해당 스트레스가 있는 응답자에게 물어본 결과 ‘교회에 가면 해소가 된다’ 63%로 3명 중 2명 가까이는 교회 생활이 일상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회·가정생활의 스트레스와 교회 영향 관계\* (해당 스트레스 있는 3040 기혼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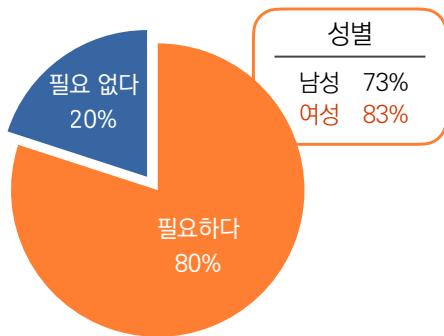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교육원, ‘3040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 (전국 만30~4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2023.09.08.~09.12.)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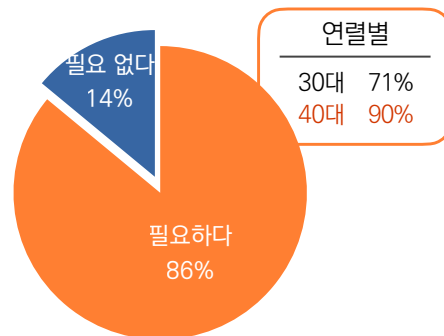
## 3040 기혼 크리스천 대부분, ‘부부 및 육아 모임 필요해’!

- 교회 내 부부 및 육아 모임이 필요한지에 관해 3040세대 기혼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그 결과, 대부분(8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여성(83%)이 남성(73%)보다 필요성 인식이 더 높았다.
- 이번에는 3040세대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교회내 탁아 역할 부서 필요성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탁아 역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압도적(86%)이었다.

[그림] 교회 내 ‘부부 및 육아 모임’ 필요성 인식\* (3040 기혼 교회 출석자)



[그림] 교회 내 ‘탁아 역할 부서’ 필요성 인식\* (3040 유아~고등 자녀 있는 교회 출석자)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4점 척도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작년 8월,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은 다큐멘터리의 캡처화면이 큰 화제가 됐다. 해당 인터뷰 당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7명대를 찍었다. 2005년 1.08명의 낮은 출산률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2007년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급기야 2023년 4분기 0.65명으로 0.7명대도 깨진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요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22년 46%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가임기에 해당하는 20~4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이다(통계청,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 정부가 제정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가사 노동과 육아는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평등 인식도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경력단절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이 결혼 의향이 없는 사유로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93%가 동의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의 허리인 3040세대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040 기혼 개신교인의 57%가 ‘가사 노동과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에 동의했으며, 가사 육아로 지친 교인의 34%가 ‘가사, 육아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다. 가사,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 약화’와 ‘교회 활동 저하’로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 신앙 약화가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위험이 있다.

희망적인 결과가 있다면, 젊은 아빠들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인식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과, 가사 육아로 지친 교인에게 교회가 큰 위로가 된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의 일과 가정 생활에 대한 우선순위가 10년 전 조사(2013)에서는 ‘일 우선시’가 64%로 가장 높았지만 2023년 조사에서는 ‘일과 가정 비슷’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도 젊은 남성일수록 높았다. 또한 사회, 가정 생활의 스트레스가 있는 3040 기혼 크리스천의 경우 63%가 ‘교회에 가면 해소가 된다’에 동의해 이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시사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는 자녀 양육 중인 부모들이 서로 위로하고 공감할 모임과 프로그램,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3040 기혼자의 80%가 ‘부부 및 육아 모임’의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서울 영락교회는 최근 기존 교회 공간을 리모델링해 3040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영락꿈터’라는 키즈 플레이존을 마련했으며, 서울 한성교회는 어린이가 예배와 놀이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의자를 치우면 롤러장 등 놀이터로 사용하고 의자를 깔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합 다목적 공간을 만들었다. 다음세대를 향한 여러 교회들의 노력이 고무적이다.

교회 밖으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돌봄 문제를 모색해야 한다. 당진 동일교회의 경우 30여년 전 돌봄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한 장의 벽보가 해당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어 현재 2자녀 이상 가정이 3000세대인 큰 교회로 성장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일과 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그리고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교회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